

18. 기황후(奇皇后)가 세운 원당사(元堂寺)³⁵⁾

◎ 기황후(奇皇后)는 천자(天子)를 얻었으나 …

◎ 오층석탑(五層石塔) 놓고 학자(學者) 간에 이견(異見)도

일찍부터 제주시 원당봉(元堂峰)에는 원나라 기황후(奇皇后)의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원나라 순제(順帝) 때 기황후는 다음 대를 이을 천자를 얻지 못하여 고민이었다. 여러 명찰(名刹)을 찾아 불공을 드렸지만 효험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하루는 어느 고승(高僧)이 말하기를 북두성(北斗星)이 비친 동해 끝 바닷가의 삼첩칠봉(三疊七峰)에 큰 절을 세워 불공을 드리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황후가 사람을 시켜 찾아보니 그곳은 바로 탐라의 원당봉이었다. 황후는 곧 이 원당봉 기슭에 큰 절을 짓게 하고 불공을 드렸다. 아니나 다를까 곧 임신을 하게 되었고,

35) 『한라일보』 제102호 (1989. 08. 19).

다음해에는 천자를 낳아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절이 바로 원당사(元堂寺)이며 이 봉우리를 원당(元堂) 또는 원당봉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지금 원당봉(元堂峰) 불탑사(佛塔寺) 경내에 있는 오층석탑(五層石塔) ↓ 이 석탑은 14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원당사(元堂寺)의 현존하는 유일한 유적이다.

전설(傳說) 속의 원당봉

이 전설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황후는 고려의 행주(幸州) 사람 기자오(奇子敖)의 막내딸로 공녀가 되어 원실(元室)에 들어갔다가 제2황후가 된 것은 1340년이었다. 그는 바로 그 전해에 이미 황자 ‘아이유시리다라’(愛猶識理達臘)를 낳고 있었다.

그리고 보면 그는 황후가 되기 전에 절을 세우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당시 원나라 황실에서 기황후의 입장이 과연 그럴만한

여유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그 무렵에 기황후는 휘정원(徽政院)을 장악하여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황자를 생산하기 전에도 황후로 책봉되려다가 실권자인 ‘바안’의 반대로 실패한 일이 있었다.

정밀 연대(年代) 측정 필요

그러나 이때는 기황후의 적대적 위치에 있던 바옌이 모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 있었으므로 기황후는 은밀히 그를 제거할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겉으로는 조심하고 있을 때였다.

기황후가 모든 실권을 장악하여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황자를 생산하고 그 이듬해 바옌 제거의 정변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의 일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전설처럼 실제 기황후의 발상에 의해서 원당사가 세워졌다면 그것은 1340년(충혜왕 복위 1) 이후에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수정사(水精寺)와 같은 연대인 1300년대 창건설과는 적어도 40년이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훨씬 그 이전부터 제주도에는 원나라의 군사나 장인(匠人) 등 많은 몽고인이 있었으므로 기황후가 은밀히 지시했다면 절 하나 세우는 것은 그리 대단할 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유적 조사와 연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단정이 어렵다고 본다.

지금 이 원당사지로 알려진 제주시 삼양(三陽)1동 686번지 원당봉 기슭에는 1960년대에 세워진 불탑사(佛塔寺)가 자리 잡고 있다. 옛 유적으로는 당시의 석탑(石塔)으로 보는 오층석탑(五層石塔)이 남아 지방유형문화재(地方有形文化財) 1호로 지정(1971. 08. 26) 보호되고 있다. 언뜻 보면 칠층석탑(七層石塔)으로 보기 쉽고, 또 일부 기록에는 그렇게 명명된 것도 있다.



1 불탑사 오층석탑(제주시 삼양동) 1 고려 후기 원간섭기에 세워진 원당사는 이미 조선 후기에 폐사되었고, 현재는 1960년대 세워진 불탑사가 자리하고 있다.

제주 특징(特徵) 살린 석탑(石塔)

그러나 이 방면의 학자들은 상륜부(相輪部, 상층 부분)에 있는 두 개의 보개(寶蓋)와 복발(覆鉢)은 층으로 따질 수가 없으므로 5층석탑으로 보는 게 옳다는 얘기가. 석탑은 완전히 제주석[현무암]으로 제조되어 있는데 위의 ‘보개’와 ‘복발’은 원래 것이 아니고 후대에 얹혀 놓은 것이라는 설과 원형 그대로의 상륜탑(相輪塔)이라는 두 설(說)이 학자간에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원당사지를 조사한 제주대 조사팀(이청규李清圭·강창언姜彰彦)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당사도 수정사와 마찬가지로 고려 말 충렬왕



발굴 중인 원당사지와 불탑사 오층석탑

(忠烈王) 때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사찰로 사지(寺址)에서 수습한 와편(瓦片)·청자(靑磁) 및 분청사기편(粉靑沙器片)으로 보아 역시 1300년경부터 1600년경까지 존속했던 사찰임이 확실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양식에 대해서도 “오층석탑은 통일신라 이래 내려오는 전형적인 석탑의 기본 형식을 갖추었으나 옥개석(屋蓋石)이 층급받침이 없고, 옥신(屋身)에 우주(隅柱)가 새겨져 있지 않는 등 매우 간략화된 양식을 보여 석탑의 재질(材質)이 현무암제인 것과 함께 비록 1기이나마 제주도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

기황후는 비단 제주도에만 질을 짓게 한 것은 아니었다. 황태자가 출생하자 곧 고려 출신의 내시 강금강(姜金剛)과 좌장고사(左藏庫使) 신예(辛裔) 등을 고려에 보내어 금강산(金剛山) 등에 범종(梵鐘)을 만들게 한 기록도 볼 수 있다.

3대 사찰 중 첫 폐사(廢寺)

기황후는 황태자를 위하여 평소에도 불공을 자주 드렸고, 또 탐라에 원의 목장(木匠) 등이 있었던 기록과 조선시대에 들어와 원나라의 양장(良匠)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의 미타삼존불상(彌陀三尊佛像)을 명나라가 가지고 간 점 등을 미루어보아 기황후의 전설을 터무니없는 것으로만 돌리기는 곤란할 것 같다.

이처럼 기황후는 황태자를 위하여 정성을 다했지만 그런 보람도 없이 결국 원나라는 명나라에 멸망하여 순제(順帝)의 대로 종막을 고하고 만다.

1653년(효종 4) 간행된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불우(佛宇)조를 보면 당시 20개의 사찰 가운데 수정사·법화사는 올라 있으나 원당사의 기록은 없다.

이것으로 보아 원나라 때의 3대 사찰 가운데 원당사가 가장 일찍 폐사(廢寺)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